

# 〈은 글꼴〉 폰트 세트

Nova de Hi

2020/10/26 v0.4

## 차례

1	배경과 동기 . . . . .	1
2	패키지 사용법 . . . . .	4
2.1	패키지 사용 선언 . . . . .	4
2.2	폰트 가족 . . . . .	4
3	사용자화 . . . . .	4
3.1	폰트 가족의 재할당 . . . . .	4
3.2	기울어지는 한글 . . . . .	5
3.3	자간과 어간 . . . . .	5
3.4	추가 옵션 . . . . .	6
3.5	옛한글 . . . . .	6
4	기타 . . . . .	6
4.1	LuaT <sub>E</sub> X . . . . .	6
4.2	UnTaza . . . . .	6
4.3	백묵 글꼴 . . . . .	7
5	결어 . . . . .	7

## 1 배경과 동기

T<sub>E</sub>X Live에는 한글 트루타입 폰트가 두 종류 들어 있다. 백묵 글꼴과 은 글꼴이다. 은 글꼴은 원래 H<sub>A</sub>T<sub>E</sub>X 폰트였던 은광희 선생의 UHC글꼴에서 비롯된 트루타입이었고, k<sub>a</sub>T<sub>E</sub>X의 초창기에 기본 폰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글 L<sub>A</sub>T<sub>E</sub>X을 오래 써온 사람에게는 친숙한 폰트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폰트를 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죽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 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그림 1: 은 바탕 기본

오늘날 Xe<sub>La</sub>TeX-k<sub>o</sub>로 한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usepackage{kotex}` 이외의 아무런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은 글꼴이 적용되어 본문의 한글 글꼴이 ‘은 바탕’으로 식자된다. 그림 1은 기본값으로 한글 한 문단을 식자한 결과이다.

새로운 텍 엔진의 등장과 더불어 한글 폰트의 선택의 폭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때 나눔 글꼴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적절한 품위를 갖춘 공개 한글 폰트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성싶지만 지금은 자유 폰트도 많고 그 자유 폰트의 품질도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예전의 친숙했던 〈은 글꼴〉을 얼마간 소홀히 대접하게 된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은 글꼴(또는 UHC 글꼴)만으로 한글 문서를 조판해야 했던 당시에, 우리는 이 폰트로 (그나마) 조화로운 한글 판면을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연구한 바가 있다. 문장 부호의 식자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생각해보았고 기본 영문 폰트와의 어울림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을 행하였다. 그 결과 중에 “자간과 어간(word space)을 적절하게 재설정 해주어야” 읽을 만한 한글 문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었다. 적절한 자간과 어간의 값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여러 실험이 행해졌고 그 성과의 일부가 `oblivoir`의 `memhangul-ucs`에 반영되어 남아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은 글꼴을 안 쓰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문제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은 글꼴을 별로 안 쓰게 된 현재에 와서 그런 조사와 실험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너무나 바람직한 발전의 결과라서 하나 아쉬울 건 없지만.

예컨대 오늘날 많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Noto CJK 폰트(Source Han과 사실상 동일한 글꼴이다)로 그림 1을 조판하면 그림 2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 결과는 대체로 자간 어간에 별다른 조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oPub-World 폰트는 더 촘촘하고 보기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3).

은 글꼴의 글자꼴이 예쁘냐 마음에 드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한글 문단의 가독성이 자간과 어간에 크게 좌우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예전에 은 글꼴의 자간과 어간 default를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그림 2: Noto Serif CJK 기본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그림 3: KoPubWorld Batang Light 기본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그림 4: 은 바탕 unfontsx 적용

설정해야 했던 경험을 되살려, 〈은 글꼴〉을 본문 글꼴로 하는 경우에 번거롭게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적당한 자간과 어간, 그리고 폰트 세트가 적용되도록 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이 패키지의 목적이다.

## 2 패키지 사용법

### 2.1 패키지 사용 선언

```
\usepackage{unfontsxe}
```

기본적으로 은 글꼴의 자간과 어간을 조절해준다. 이 패키지 사용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문단 모양의 예시는 그림 4에 있다.

### 2.2 폰트 가족

본문 은 바탕 이외의 은 폰트 몇 종류를 NFSS에 대응시켜 두었다. 그 설정을 표 1에 요약하였다. 따라서 `\itshape` 자리에는 은 그래픽 글꼴이 쓰인다. `FakeSlant`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탤릭 자리에는 은 그래픽을 쓰는 것은 나름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다.

표 1: 폰트 가족의 할당

	rmfamily	sffamily
Regular	UnBatang	UnDotum
BoldFont	UnBatangBold	UnDotumBold
ItalicFont	UnGraphic	UnDinaru
BoldItalicFont	UnGraphicBold	UnYetgul

`\sffamily\bfseries\itshape`는 은 옛글 폰트가 나오도록 해두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장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상적(?)인 문서에서 의도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sffamily\bfseries\itshape`로 식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 3 사용자화

위의 설정들은 패키지 옵션을 이용하여 사용자화할 수 있다.

### 3.1 폰트 가족의 재할당

표 1의 폰트 할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재할당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할 key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mjbld=hline.ttf`와 같이 지정하면 `hline.ttf`가 `rmfamily`의 `bold series`에 적용된다.

```
mjbold=
mjitalic=
mjbolditalic=
gtbold=
gtitalic=
gtbolditalic=
```

= 뒤에 폰트 이름을 적어준다. 파일 이름이나 폰트 이름을 쓸 수 있다.

이 패키지의 원래 의도와는 무관하지만 mj와 gt의 기본 폰트도 원한다면 바꿀 수 있으며 이때에는 mj=와 gt= 두 개의 key를 사용한다.

### 3.2 기울어지는 한글

```
[fakeitalic]
```

이 옵션이 주어지면 [AutoFakeSlant]를 활성화한다. 즉 ItalicFont와 BoldItalicFont가 우사체로 식자된다. 폰트 자체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ItalicFont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fakeitalic]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은 그래픽 글꼴이 기울어지게 식자될 것이다. 이것을 은 바탕이 기울어지는 것만 되게 하려면,

```
\usepackage[mjitalic={*},mjbolditalic={*Bold},fakeitalic]{unfontsxe}
```

와 같이 하면 되겠다.

*기울어지는 우사체. 굵게 기울어지는 우사체.*

### 3.3 자간과 어간

자간과 어간을 사용자가 조절하고 싶다면, 다음 key에 적절한 값을 주어서 패키지 옵션을 부여한다.

```
mjinterhangul=
gtinterhangul=
mjwordspace=
gtwordspace=
```

interhangul 값은 단위가 붙은 길이값으로 준다. 예를 들면 mjinterhangul=5pt. 이 값은 양수값이지만 실제로는 “당기는 길이” 이므로 음수값으로 바뀌어서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mjinterhangul=2pt라는 것은 InterHangul=-2pt와 같은 의미이다.

workspace 값은 fontspec의 WordSpace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
mjwordspace=1
```

또는

```
mjwordspace={1,.5,.5}
```

이런 방식으로 부여하면 된다. 이 값의 의미에 대하여는 fontspec 매뉴얼을 참고할 것.

### 3.4 추가 옵션

사용자가 추가적인 feature option을 부여하려 할 적에는

```
[other={}]
```

옵션을 사용하라. 중괄호 안에 원하는 옵션들을 추가한다.

### 3.5 옛한글

은 바탕으로 옛한글을 식자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jamo] 옵션을 활성화한다.

```
\usepackage[jamo]{unfontsxe}
```

입력은 자모 한글로 하면 된다. pmhanguljamo로 간단한 입력을 시도해보자.

```
\jamoword{na/ras;mar:ss@/mi;, bu/tyey:  
目連/i; d@/rye; ni/r@/sya/d@i;}
```

나랏팔쌍피, 부떼 目連이 두려 니르샤띠

## 4 기타

### 4.1 LuaTeX

LuaLaTeX으로 조판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동작한다.

### 4.2 UnTaza

패키지 옵션 [untaza]를 주면 mono 한글 폰트로 은 탁자 글꼴을 적용한다. 이 글꼴은 monospaced 글꼴이라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글꼴 모양에 호불호가 심해서 default로 올리지는 않았다.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죽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집김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불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그림 5: 백묵 글꼴 예시

### 4.3 백묵 글꼴

백묵 글꼴도 T<sub>E</sub>X Live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 한글 글꼴이다. 굵은 글꼴 없이 `batang.ttf`, `dotum.ttf`, `gulim.ttf`, `hline.ttf` 네 개의 폰트 파일이 들어 있다. 마지막 것은 드물게 보는 **제목용 글꼴**이다.

이 패키지는 원래 은 글꼴을 위하여 만들었지만 편의를 위하여 `[baekmuk]` 옵션을 두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백묵 바탕, 백묵 돋움 글꼴로 본문을 식자하며, `FakeItalic`과 `FakeBold`가 활성화된다. 본문 식자의 예를 그림 5에 보였다. 이 패키지가 제공하는 옵션을 이용하여 백묵 글꼴이나 다른 폰트를 설정해서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 5 결어

이 패키지는 〈은 글꼴〉의 사용을 촉진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폰트 사용은 어디까지나 문서작성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이 패키지가 은 글꼴의 활용에 조그만 편리라도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